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11. / (총 17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정 혜 은	전 화	044-202-3575
	담 당 자	윤 민 수		044-202-3804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 장	양 철 수		02-2100-6361
	담 당 자	김 영 숙		02-2100-6363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	팀 장	이 경 진		044-202-2023
	담 당 자	김 문 희		044-202-2031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과 장	전 재 필		043-719-6550
	담 당 자	이 광 수		043-719-6527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총괄팀	팀 장	이 상 원		043-719-7840
	담 당 자	박 재 선		043-719-7849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TF	팀 장	모 두 순		044-202-2963
	담 당 자	김 한 일		044-202-296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팀 장	이 병 철		044-205-6511
	담 당 자	전 중 형		044-205-65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결혼식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 ▲의료진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코로나19 잔여 검체 분양을 통한 진단도구 성능개선 지원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결혼식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 ▲의료진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코로나19 잔여검체 분양을 통한 진단도구(키트) 성능개선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과 인구 이동량도 많아 수도권 발 감염이 언제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결혼식장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결혼식 등 가족행사’ 생활 방역팀을 구성(4월 20일)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와 함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 이에 결혼식이 많이 진행되는 5월에 결혼 예식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 총 64개소(토·일 주말) : 1차(5월 9일~5월 17일), 2차(5월 23일~5월 31일)

- 점검 결과, 64개소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손 소독제 비치, 식사 시 개인 접시에 음식 덜어 먹기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 또한 출입 시 발열 검사와 호흡기 증상 확인도 61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 다만, 행사 탁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는 21개소, 식사 시간 갈지자(지그재그) 착석은 8개소에서만 지켜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하객 대상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방송 실시에 대한 자체 안내와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결혼 예식장을 비롯하여 돌잔치 등 가족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 의료인 응원캠페인(#덕분에챌린지)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 참여 캠페인)’ 추진 사항을 보고 받았다.
- 4월 16일(목)을 시작으로 현재(6월 10일 기준)까지 국민 캠페인 동참 건수는 최소 38,324건*으로, 일일 평균 약 700명의 국민이 공식 채널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 * 인스타그램 내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수집 기준으로, △#덕분에챌린지 38,324건 △#덕분에캠페인 18,464건 △#의료진덕분에 28,528건 △#thankstochallenge 2,494건
-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예술계의 참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 국내 최초 ‘윈도우 페인터’로 유명한 나난 작가는 ‘덕분에 챌린지’ 수어 동작을 표현한 작품과 함께 “저의 이 작은 메시지가 현장에 계신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소망한다.”라며, “이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저의 삶의 영역에서도 함께 동참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섭섭 작가는 수어 동작을 하는 캐릭터를 일러스트로 표현한 작품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개하여,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해 미술 체험 등을 지원하는 밀알복지재단의 '브릿지온 아르떼(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미술 사업)' 작가들은 직접 그린 '덕분에 챌린지' 그림과 함께 참여 사진을 게재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 이 외에도 캘리그래피, 웹툰, 드로잉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다양하게 참여 중이다.

나난 작가 작품	섭섭 작가 작품	김태민 작가 작품 (밀알복지재단 브릿지온아르떼)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어통역을 담당하는 공공수어 통역사들의 참여와 함께 개인, 단체 수어통역사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 정례브리핑에서 수어통역을 하는 권동호 공공 수어통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덕분에 챌린지 지목으로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 이 외에도 강원도농아인협회, 안산농아인협회 등의 단체에서도 덕분에 챌린지 참여 사진과 함께 의료진 덕분에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권동호 공공수어통역사	현영옥 수어통역사	강원도농아인협회	안산농아인협회

3 코로나19 잔여검체 분양을 통한 진단키트 성능개선 지원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성능개선 등을 위한 검체 분양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긴급사용승인 7개 제품*이 활용되고 있으며, 92개 제품이 수출용 허가를 획득하여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나,

* 코젠바이오텍, 씨젠, 에스디바이오센서, 솔젠트, 바이오세움,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 등 7개사 제품

- 정식허가를 받기 위해 다수의 양성검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단키트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 24일) 한 바 있다.

□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업계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 검체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 남은 약 1,700건*의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를 수거하였으며, 국립보건 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 총 1,100여 건의 인후도말물과 총 500여 건의 객담 검체

□ 신청접수는 6월 12일(금)부터 6월 19일(금)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 인체자원이용계획서, IRB심의용 연구계획서 또는 식약처 허가신청 임상계획서 등

○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업이 분양받은 검체를 활용하여 임상평가를 수행하고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매칭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용 허가 매칭 실적) 61건 접수 및 11건 수출용 허가 완료 ('20.6.9. 기준)

○ 검체를 분양받은 기업은 전화(1670-2622) 또는 인터넷 누리집* (www.khidi.or.kr/device)을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임상적 성능평가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

☞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http://www.khidi.or.kr/device>) → 종합지원센터상담 → 본인인증 후 상담신청 (신청자 정보, 기업명, 제품화 단계, 상담 요청 내용 작성)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분양된 검체가 코로나19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개선 등에 활용되어,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 경찰청에 따르면 어제(6월 10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11명), 집합금지를 위반한 1건(16명) 등 총 11건(27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489건(748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258건(317명)을 기소(구속 6명)하였고 231건(428명)은 수사 중이다.
 -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5월 31일(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2일(화)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 방문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의자 등 2건(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5월 12일(화)부터 5월 26일(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5월 23일(토) 정상 영업한 업주와 이용 손님 등 16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 중이다.

- 기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서는 6월 10일(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지자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사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5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0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262개소, ▲노래연습장 2,191개소 등 총 22,41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 거리 두기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1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고위험시설 113개소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도입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으며,
- 대전광역시에서는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공용물품 소독대장 미비치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16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038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2개반, 739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1,362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2,676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19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0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8,046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91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55명이다.
- 2,595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4,16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70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월 10일)는 2명이 격리 해제 일자 오인, 운동 목적(당뇨 환자)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였고,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6명이며, 이 중 10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6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6개소 3,00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0일) 입소 181명, 퇴소 160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98명

- < 붙임 >
1.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분양 안내
 2.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분양 관련 주요 질의답변
 3. 감염병 보도준칙
 4.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붙임1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분양 안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집·활용된 잔여검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 진단 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분양신청을 안내드립니다.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분양대상자원 :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1,703건

- 인후도말(NPS/OPS) 검체 1,184건, 객담 검체 519건
- 검체관련정보 : 연령대, 성별, 검사키트 제조사, 검체종류(인후도말, 객담), 검체 Ct값 (3가지 유전자: E, RdRp, N)
- 검체량 : 0.2~1ml/vial (-70℃ 초저온냉동고 보관)

○ 활용분야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진단기기 개발, 연구, 실험실 정도관리 등

※ 인간의 유전체 등의 분석에 사용할 수 없음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임상적 성능시험 목적으로 이용시 관련기관에 사전확인 필요(FAQ참조)

○ 신청대상기관

-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

※ 검체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BL2 또는 BL3) 보유 필요

○ 신청기간 : 2020년 6월 12일(금) ~ 2020년 6월 19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신청

1. 온라인 분양신청

- 질병관리본부 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
(문의: 043-719-6534) → 온라인 분양데스크 신청서 작성

2. 이메일 분양신청

- 신청양식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biobank@korea.kr)

○ 분양절차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체자원 분양
※ 신청 수요에 따라 신청기관별 분양 가능한 검체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분양수수료 : 면제

○ 신청양식

1. 인체자원이용계획서(서식)
2. 서약서(서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
4. IRB심의결과서(분양승인 후 제출가능)
5. IRB심의용 연구계획서 또는 식약처 허가신청 임상계획서
6. 분양신청공문

※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분양 관련 FAQ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김남희 (043-719-6534, biobank@korea.kr)

붙임2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분양 관련 주요 질의답변

☞ 분양 검체는 어떤 종류입니까?

- 양성 환자에 대한 인후도말(NPS/OPS) 검체, 객담 검체이며, 음성 환자 검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능한 자원의 양은 얼마나 되며, 신청하는 수량을 모두 분양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당 0.2~1ml/바이알이며, 신청서 접수 후 분양위원회에서 이용 목적, 검체 신청수량 및 산출근거, 연구시설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분양이 결정됩니다. 분양받을 수 있는 최종 수량은 전체 신청수요, 분양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검체 수집에 사용한 검사 키트 종류를 알 수 있나요?

- 검사 키트 명 대신 키트 제조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검체에 대한 임상역학 정보도 제공하나요?

- 검체 관련 정보는 총 5가지 항목입니다. 연령대, 성별, 키트 제조사, 검체종류(인후도말, 객담), 검체 Ct값 (3가지 유전자: E, RdRp, N)

☞ 검체 이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나요?

- 검체 이용 목적은 분양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제공 가능한 목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진단기기 개발, 연구, 실험실 정도관리 등입니다.

- 인간의 유전체 등의 분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검체를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임상적 성능시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요?

- 해당 검체는 진단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로 검체 수집 및 보관은 “COVID-19 검사실 진단지침 제3판(2020.3.1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위원회)”을 따랐으며, 분양 전까지 -70℃ 이하의 초저온냉동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는 바이오뱅크의 분양 검체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에 검체 분양 정보를 명확히 명시하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필요시 식약처 담당 부서와 사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 기관에서 갖춰야 하는 연구시설 기준이 있는지요?

- 활용하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검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BL2 실험실이 필요하며, 바이러스 분리·배양 연구를 위해서 BL3 실험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 COVID-19 바이러스를 분양 받을 수 있는지요?

- 검체에서 분리 배양된 COVID-19 바이러스는 질병관리본부 병원체 자원관리TF 국가병원체자원은행 (Tel. 043-719-6871, <http://nccp.cdc.go.kr>)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4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